



##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

- \* 예배 초청 .....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다함께  
대표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유경애  
광고 .....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자  
설교 ..... 용서의 능력 (마 18: 23-35) ..... 이진수목사  
결단찬양 ..... “주께 두손모아 비나니” ..... 다함께  
축도 .....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http://hkb.church)

### 회개의 능력” (이사야 59:1-2)

이 시대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친근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별로 죄진 일 없는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회개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정죄하는 말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잘못되면 다 남을 탓하고 사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기에 그 죄로 하나님과 꼭 막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과 변화와 성숙된 삶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 속에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하시는 그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입술을 보게 하시고, 결단하고 중단해야 할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를 보게 하시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구나” 라고 깨달아지시면 그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분노나 미움, 섭섭함이 생기면 회개해야 합니다. 남이 실수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맘에 거스리고 짜증이 나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상대방 때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여 주신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질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회개할 죄를 돌아보고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컴퓨터 사용법** - 4월 21일 주일 오후 1:30분에 제직 컴퓨터 사용 설명회가 있습니다.
3. **전도 세미나** - 5월 12일과 19일 주일 예배 후에 전도 세미나를 갖습니다.
4. **제직 수양회** - 제직 수양회가 5월 24-25일에 세계금식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5. **제직 & 집사** - 제직분들을 집사님으로 불러 주십시오. 목회자 칼럼을 참조해 주십시오.
6. **전교인 대심방** - 전교인 대심방에 동참해 주십시오.
7. **2024 교회 표어** - 2024년 교회 표어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로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와 전도에 힘써 주십시오.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4/14	4/21	4/28	5/05
대표기도	유경애	김영란	손다니엘	유경주
헌화성도	차은희	이진수	오상진	유경주
봉사당번	믿음구역	소망구역	각전도회	소망구역

## 행사 및 모임

5 월	어머니날	5월 12일 (주일)
	제직 수양회	5월 24일-25일
	새신자 환영	5월 (미정)

##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1,720.00	

##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b>TEE</b> 성경공부-12 주	12 주

## 교회에서 부르는 집사의 호칭에 대하여

어느 단체나 회사, 모임에는 직책에 맞는 호칭이 있습니다. 나라로 말한다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장, 부장, 과장, 실장이 있고 단체에서는 회장, 부회장, 서기 등으로 불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그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나이가 차이가 나도 “형, 누나, 언니, 동생” 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거룩한 자” 라는 뜻의 “성도님” 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라고 부르기가 한국적인 문화에서 어렵게 느껴지시면 “OO 성도님” 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귀에 익은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목사” 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직분은 “목사와 집사” 만 나옵니다. 물론 “장로, 감독”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직분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호칭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집사님” 이라고 부를 때는 “서리집사” 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Deputy Deacon” 이라고 표현되는데 안수집사와 다르게 임기가 있는 일을 하는 집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로 보면 매년 세우는 부장님들, 구역장, 전도회 인도자를 제직으로 (현장 26 조) 세우는데 이 분들이 바로 서리 집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부장님과 구역장, 전도회 인도자님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란 말 그대로 집사 안수를 받을 때 교회가 안수를 함을 통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다른 교단으로 보면 장로와 같은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6 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받는 일곱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여러 사역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짧은 지면이라 직분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지는 못하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불림을 받는다면 누구보다 더 섬김의 모습, 먼저 앞서서 희생하는 모습,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세운 제직들, 즉 집사님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일을 방관하고 “나를 섬겨라” 라는 자세가 아니라 집사님들의 섬김에 함께 동참하여 “집사님,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마음과 태도를 보임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집사님들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원함으로 도와주십시오.

##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 교회약도 *Church Map*

